

社會經濟的 地位에 다른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에 관한 研究

A Study on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by Level of Socio-Economic Status

서울대학교 大學院 家庭管理學科

崔 妍 實

Dept. of Hom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 Shil Choi

서울대학교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助教授 : 玉 先 花

Dept. of Hom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un Wha Ok

목 차

I. 問題의 提起	IV. 結果 및 解釋
II. 理論的 背景	1) 社會經濟的 地位에 다른 結婚滿足도
1) 結婚滿足도, 結婚安定性,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의 概念	2) 社會經濟的 地位에 다른 結婚安定性
2)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의 關係에 대한 社會交換理論	3) 結婚滿足도,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에 다른 結婚安定性
3) 關聯研究의 考察	4) 社會經濟的 地位別 結婚安定性에 미치는 結婚滿足도,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의 相對的 影響力
4) 假說 設定 및 變數의 定義	5) 社會經濟的 地位別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의 類型分析
III. 研究方法 및 節次	V. 結論 및 提言
1) 調查對象	참고문헌
2) 調查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3) 資料蒐集 및 調查節次	
4) 調查道具의 構成	
5) 資料의 分析方法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ow social class system influences family life, especially, marital relationship through area of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and to find out the influences of variables related to marital stability, that is,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alternatives and barriers to marital breakup. The study was performed in a viewpoint of social exchange approach.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husbands and wife's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differed significantly by their level of SES. The marital satisfaction scores and the marital stability score of higher class were higher than those of lower class.

Second, the higher the marital satisfaction scores and the barriers to marital breakup scores were, the higher the marital stability scores were. And the higher the marital alternatives scores were, the lower the marital stability scores were.

Third, the independent influences of variables related to marital stability were differed by level of SES.

The last, the typology of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differed by level of SES. In lower class, the marriage type of low satisfaction and low stability is more than other types. But in middle and upper class, the most marriage type is high satisfaction and high stability marriage.

I. 問題의 提起

일반적으로, 構造化된 社會의 不平等을 의미하는 階層¹⁾은 歷史·文化·經濟·政治·思想 등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고 類型化되어 비교적 지속성을 띠고 나타난다(趙馨 1981).

階層이 그에 속한 사람들의 실제생활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양상은 家族生活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家族은 社會가 구성원들을 社會經濟的 資源의 배분이나 접근 측면에서 層化시켜, 生活樣式이나 生活의 機會를 규정하는 階層의 結果를 가장 일상적인 생활의 단면으로 경험하는 영역이다.

한편 現代 產業社會에서는 家族의 形態가 核家族으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家族 内部의 關係도 夫婦中心의 家族으로 달라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 家族의 外形의 特性을 볼 때, 直系 家族의 비율이 낮아지고, 家族規模도 小人數 家族으로 변하는 등 核家族化 方向으로 변화가 진

행되고 있으므로(崔信德 1986), 夫婦關係가 전체 家族生活에 미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家族生活 안에서 핵심적 관계로 등장하고 있는 夫婦關係에 대한 연구 중에서 특히 結婚의 質을 나타내는 下位概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結婚滿足度 연구는 이 영역이 다루고 있는 現象이 가족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크게 注目을 받아왔다(Burr et al 1979). 夫婦關係에서 경험하는 結婚滿足度는 家族生活에 대한 滿足에 중요하며(소연경 1981; Campbell et al 1976), 더 나아가서는 전체 生活滿足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朴龍治 1977; Glenn & Weaver 1981).

또한 結婚安定性은 結婚滿足도와 더불어 夫婦의 결혼생활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한 가족의 永久性을 좌우하게 된다(李効再 1984). 結婚安定性은 전반적인 社會의 변동에 따라 家族의 安定性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과 같은 (Goode 1962) 社會的 影響力과 더불어, 결혼생활의 지속

註 1) 洪斗承, 徐寬模, "한국 사회계층의 실태와 개념상의 재구성 문제", 思想과 政策, 1984년 봄호; 53-61.

이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結婚解體의 代案이나 障壁과 같은 要素들의 영향을 받는다 (Levinger 1976; Edwards & Saunders 1981; Lewis & Spanier 1982; Udry 1981, 1983).

이와 같이 결혼생활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指標가 되는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성은 家族規範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아울러 社會階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家族生活이 精神的·物質的 基盤을 바탕으로 유지·전개되어 가는 영역이므로, 社會經濟的 資源의 배분이나 그 접근 위치의 差別的 層化가 家族生活에 多少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변수는 階層의 結果가 夫婦關係라는 친밀한 人間關係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指標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國內 先行研究에서는 社會經濟的 地位와 結婚滿足도가 正的 相關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朴泰溫 1983; 徐炳淑, 金潤 1983; 李美淑 1985; 李玉珍 1982; 李貞蓮 1987). 또한 外國의 先行研究에서는 結婚滿足도가 結婚安定성을 예측하는 一次的인 要因이 되어(Spanier 1976), 結婚安定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結婚滿足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은 사람들이 結婚安定성도 높다고 하였다(Cutright 1971; Goode 1962; Levinger 1965).

그런데, 國內의 先行研究에서는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른 結婚滿足도의 差異에 대해서 제한된 情報을 제공하고 있고, 結婚安定성에 대한 연구도 다른 分野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그러므로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하나의 端緒를 제공해 줄 수 있는 社會經濟的 地位로 접근하여, 그 地位의 差異에 따른 結婚滿足도의 差異를 검증하고 結婚安定성과의 關係를 규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社會經濟的 地位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都市家族의 家庭生活 특히

夫婦關係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를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이라는 변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현재의 夫婦間 關係에 대한 代案과 障壁의 存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社會 交換理論의 觀點에서 고찰하려는 것이 本 研究의 目的임을 밝혀둔다.

II. 理論的 背景

1) 結婚滿足度, 結婚安定性,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의 概念

(1) 結婚滿足度

結婚滿足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유사한 意味를 가진 여러 개념들이 사용되어 概念上의 無秩序 현상을 빚어왔지만, 1970年代에 들어와 개념 정리작업을 통해 '結婚滿足度'와 '結婚의質'로 수렴되는 추세이다(Burr et al 1979).

그런데, 結婚의質은 그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더 복잡하고 측정 또한 結婚滿足도보다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本 研究에서는 結婚滿足도 개념을 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滿足'은 個人的 충족되는 欲求의 정도이며(소연경 1981), 滿足感 수준은 지각과 평가 사이에 比較基準이나 熱望水準 또는 期待가 작용하게 된다(Campbell et al 1976).

이러한 滿足의 定義를 받아들여 Sabatelli(1984)는 交換理論의 입장에서 結婚比較水準指標(MCLI; The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를 만들어 냈다. 이 지표는 한 개인이 夫婦關係에 대해 期待한 것과 그로부터 얻는다고 知覺되는 結果를 比較해서 評價한 것으로, 期待水準을 초과할 때 滿足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로 얻은 성취보다는 그에 대한 개인의 主觀的 知覺이 滿足도에 작용한다고 보는 觀點이다.

本 研究에서는 이 觀點에 입각한 比較水準의 滿足 개념을 취하기로 한다. 結婚을 통해 이루어진 夫

婦라는 人間關係에서 경험되는 結婚滿足度 역시 時期와 生活事件에 따라 변화하고 主觀的 期待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2) 結婚安定性

結婚安定性은 일반적으로 어떤 結婚生活이 유지되는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安定된 結婚은 엄격히 말하자면, 한 배우자의 死亡에 의해서만 婚姻關係가 해소되는 것이며, 不安定한 結婚은 한 배우자 혹은 양배우자가 意志的으로 종료시키는 結婚이다. 사망 外에 가장 보편적인 종로의 형태는 離婚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夫婦들은 최후의 離婚 決定전에 別居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離婚 전의 非公式的 別居는 不安定한 結婚으로 볼 수 있다. 한 배우자에 의한 遺棄도 結婚不安定性의 指標가 되는데, 이는 非公式的인 結婚의 종로이다(Lewis & Spanier 1979).

結婚不安定性은 結婚安定性과 같은 次元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結婚瓦解, 離婚, 낮은 結婚의 質, 遺棄라는 개념과 相互交換的으로 사용되어 왔다(Booth et al 1983). 그러나 이 개념들은 서로 상관은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들이다. Booth(1980)는 結婚不安定性을 '解體에 이르러 최후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지라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結婚을 夫婦가 瓦解시키려는 性向'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結婚安定性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離婚과 別居에 의존하였으나, 이 연구들은 不安定性의 결과를論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不安定性 그 자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公式的인 離婚보다는 不安定性을 측정하는 指標를 통해 結婚安定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3)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은 현재 婚姻關係 이외의

다른 可用한 關係에서 가능한 結果를 말한다(Lewis & Spanier 1979).

Levinger(1965)는 이러한 代案의 誘因으로서, 현재 배우자 이외의 다른 相對者로부터의 愛情的 報償, 結婚解體에 제약이 되는 親族이나 社會關係의 不在, 宗教的 信念의 거부, 婦人의 獨立的인 所得機會와 같은 經濟的 報償 등을 들고 있다.

지속적인 代案의 탐색은 어떤 사람의 '代案에 대한 比較水準'을 구성하게 만들어(Thibaut & Kelley 1959), 그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代案的인 關係가 많을수록, 현재의 배우자가 誘因이 많을지라도 현재의 關係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초과할 結果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資源이 많을수록, 자신의 結婚代案에 대한 知覺이 커질 것이며, 배우자의 資源이 적을수록, 개인의 結婚代案은 커질 것이므로(Udry 1981), 結婚安定性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4)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

結婚解體에 대한 障壁은 夫婦關係의 解消에 대한 內的 外的 제약이나 방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Levinger(1976)에 따르면, 內的 제약은 離婚에 반대하는 宗教的 規定이나 夫婦間의 紐帶, 扶養子女에 대한 義務感 등이며, 外的 制約은 家族의 存續에 대한 社會的 規範의 期待나 壓力, 離婚에 대한 社會的 不名譽意識, 法的·經濟的 制約 등이다.

障壁은 長期的인 關係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하며 對人的인 誘因에서의 일시적 변동의 영향을 약화시켜, 심지어 誘因이 없는 關係일지라도, 그 障壁이 초래하는 費用에 대한 예상으로 말미암아 불유쾌한 關係를 유지시킬 수 있다.

2)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의 關係에 대한 社會交換理論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에 관한 연구에 가장

많이 공헌한 것은 社會交換理論이다. 社會交換理論의 基本的 前提는, 인간은 社會的 相互作用 과정에서 報償을 극대화하고, 費用을 극소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報償은 바람직한 結果를 말하고, 費用은 그렇지 못한 結果를 말하는데, 報償과 費用의 比較를 통한 評價를 結果나 利益이라고 한다(Thibaut & Kelley 1959).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を 社會交換理論의 視角으로 보는 研究들은 1980年代에 들어와서 더욱 활발한데(Edwards & Saunders 1981; Michael et al 1986; Sabatelli 1984; Sabatelli & Cecil-Pigo 1985; Udry 1981, 1983). 이 연구들에 최초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사람은 Levinger(1965)였다. 그는 場理論의 개념을 도입하여, 結婚을 유지시키는 誘因과 와해에 대한 障壁, 結婚에 대한 代案이라는 개념으로 婚姻關係의 解體에 접근하였다.

한편 Burr(1973)는 結婚滿足도에 관한 理論을 통하여 夫婦間 相互作用에서의 結果가 報償을 주면 긍정적 감정을 산출하고, 結果가 費用이 크면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서 結婚滿足에 대한 結果를 산출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Burr의 理論을 더욱 발전시킨 Lewis와 Spanier(1979, 1982)는 “結婚의 質과 結婚安定性的 社會交換理論”을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켜 “結婚의 質과 結婚安定성에 대한 交換類型論”을 개발하였다. 그들의 類型論은 社會交換理論으로부터의 假定과 네가지 要素 즉, 結婚의 質, 結婚安定性, 結婚의 質에 영향미치는 夫婦內的(intradyadic) 要因, 結婚安定성에 영향미치는 夫婦外的(extradynamic) 要因들 사이의 관계로 구성된다. 한 夫婦는 結婚의 質의 次元에서 夫婦內的인 報償(誘因과 紐帶)에 긍정적 영향을 받으며, 夫婦內的 費用(緊張과 葛藤)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結婚安定性的 次元에서는 外的 費用(結婚維持에 대한 社會的 壓力)과 外的 報償(結婚에 대한 代案의 誘因)에 따라 각각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받

는다.

따라서, 일정한 視點에서 한 夫婦는 1. 높은 質과 높은 安定性, 2. 높은 質과 낮은 安定性, 3. 낮은 質과 낮은 安定性, 4. 낮은 質과 높은 安定性과 같은 네가지 類型 中 하나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한 배우자가 知覺하는 報償이나 費用은 객관적인 외부의 평가자들에 의해 관찰되는 것과 아주 다를 수 있다. 結婚의 質과 安定性에서 이러한 個人 知覺의 특수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방법은 社會交換理論의 基本概念인 “比較水準(comparison level)”과 “代案比較水準(comparison level for alternatives)”을 이용하는 것이다. 前者는 한 個人이 자신이 關係의 質을 이미 알고 있는 다른 關係에 비교해서 평가하는 個人的인 基準이며, 後者는 다른 잠재적 關係나 選擇 측면에서의 比較를 통해 자신의 關係를 유지시킬 것인가 중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水準을 말한다.

社會交換理論은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的의 관계 규명에 매우 유용한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經驗的 結果로부터 도출된 명확한 命題를 구상하고 있으므로, 本 연구에서는 이러한 Lewis와 Spanier의 社會交換理論의 觀點을 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關聯研究의 考察

다음에는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른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성에 관한 先行研究를 고찰한다.

(1) 社會經濟的 地位와 結婚滿足度

國內의 先行研究에서는 많은 研究들이 社會經濟的 報償을 구성하고 있는 教育이나 所得 혹은 職業 水準과 結婚滿足도가 正的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朴泰溫 1983; 李亨淑 1985; 李玉珍 1982; 李貞蓮 1987).

그러나 劉永珠(1979)는 家庭의 收入은 그 자체로 結婚滿足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中流

層이 高所得層이나 低所得層에 비해 滿足도가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로 社會經濟的 水準이 높은 階層의 結婚滿足도가 높은 이유를 Scanzoni(1970)는 '互惠의 過程'으로 설명한다. 높은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른 남편의 고소득과 명성은 이 과정을 통해 부인의 서어비스와 같은 道具的 報償과 理解·感情移入·愛情表現과 같은 表出的 報償으로 교환되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結婚滿足을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社會經濟的 地位와 結婚滿足도를 설명하는 데, 배우자의 期待水準과 관련된 主觀的 評價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들 (Goode 1953; Scanzoni 1975)이 있다. Scanzoni(1975)는 客觀的인 社會·經濟的 要因들이 情緒的 要素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두 報償 간의 주요한 媒介要素인 '狀況의 定義'와 '相對的 剝奪感'이 작용하여 主觀的인 經濟的 滿足도가 관련되며, 意味 있는 他者와의 비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外國에서는 1970年代 後半에 들어와 結婚滿足도와 人口學的 變數間 관계가 약하다는 연구들도 있다(Brinkerhoff & White 1978; Glenn & Weaver 1978; Jorgensen 1979). 이 연구들에서는 以前 研究들과는 달리 社會經濟的 變數가 結婚의 質을 많이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다소 論難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先行研究들에서 男便의 社會經濟的 地位나 收入이 結婚滿足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입증되고 있다.

(2) 社會經濟的 地位와 結婚安定性

1970年代부터 꾸준히 연구되어온 結婚滿足도 연구와 비교해볼 때 結婚安定性 연구는 빈약한 편이며, 특히 社會經濟的 地位와 結婚安定性을 다룬 연구는 극히 적다. 지금까지의 先行研究들에서는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으면 結婚安定性이 높으며 離婚率도 감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Davis et al 1965; Udry 1966; Cutright 1971).

하지만 男便의 教育·職業·所得으로 이루어진 社會經濟的 要素가 작용하기도 해서 반드시 한가지 방향의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South(1985)는 離婚率에 미치는 經濟的 條件을 두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다. 첫째 방향은 경제적 번영이 불행한 結婚生活을 하고 있는 夫婦들에게 그들의 結婚을 解體시킬 經濟的 手段을 제공하므로 離婚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방향은 경제적 조건이 夫婦關係에 긴장을 가져와 離婚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社會的·經濟的 狀況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國內의 先行研究들에서는 離婚에 대한 일반적인 價値觀과 規範이 아직 完化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되어 이 방향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階層問題와 夫婦間 關係를 관련시켜 연구한 손덕수(1983)는 都市貧民層에서 家庭의 貧困으로 인한 解體 혹은 家族의 非結束상태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家族의 安定性은 그 家族制度가 존재하는 全體的이고 複合的인 社會·文化的 條件과 별도로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夫婦關係 不安定性의 가장 客觀的인 基準은 離婚이나 別居지만,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社會的 壓力이나 義務感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불유쾌한 結合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公式的인 結婚解體 指標보다는 실제의 結婚生活의 安定性을 파악할 수 있는 指標를 택하고자 하였다.

4) 假說 設定 및 變數의 定義

(1) 假說 및 研究問題

本 연구에서 설정한 假說과 研究問題는 다음과 같다.

[假說 1]: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라 結婚滿足도는 有意한 差異를 보일 것이다.

〔假說 2〕: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라 結婚安定性은 有意한 差異를 보일 것이다.

〔假說 3〕: 結婚滿足도가 높을수록 結婚安定性이 높을 것이다.

〔假說 4〕: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이 많을수록 結婚安定性이 낮을 것이다.

〔假說 5〕: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이 높을수록 結婚安定性이 높을 것이다.

〔研究問題 1〕: 社會經濟的 地位別로 結婚安定性에 미치는 結婚滿足도,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의 影響力은 어떠한가?

〔研究問題 2〕: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의 類型은 社會經濟的 地位別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2) 變數의 定義

① 結婚滿足도: 結婚生活에서의 期待와 실제로 받은 報償과의 일치를 포함하여 結婚生活 전반에 대해 主觀的으로 경험하는 滿足이나 기쁨으로 정의한다. 本 연구에서는 Sabatelli(1984)의 結婚比較水準 개념에 따라 結婚滿足도를 結婚生活에 대한 期待水準과 현재의 結婚生活을 비교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② 結婚安定性: Booth(1980)의 개념 정의에 따라 結婚安定性を 解體에 이르러 최후의 結果를 가져오지는 않았을지라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結

婚을 夫婦가 와해시키려는 性向의 정도로 정의한다.

③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Lewis와 Spanier(1979)의 개념 정의에 따라 婚姻關係를 해체했을 때, 다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 정의내린다.

④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 Levinger(1976)에 따라 현재 婚姻關係의 解體를 방해하는 內的·外的 제약이나 障壁로 정의한다.

⑤ 社會經濟的 地位: 本 연구에서는 男便의 教育²⁾, 男便의 職業³⁾과 月平均 家計所得⁴⁾으로 구성했다. 이 변수들의 수준을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주어 이 세 변수들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다시 세 범주의 社會經濟的 地位로 구분하였다⁵⁾.

그 결과 本 연구의 응답자는 上層이 89名(20.0%), 中層이 200名(45.1%), 下層이 155名(34.9%) 이었다.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査對象

本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結婚持續年數가 최소한 1年을 경과한 夫婦⁶⁾中 初婚인 경우⁷⁾로 對象을 한정하였다⁸⁾.

註 2) 教育水準은 무학 1점, 국졸 2점, 중졸 3점, 고졸 4점, 대졸이상 5점으로 구분했다.

註 3) 職業水準은 洪斗承(1983)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분하였다. 임시고용, 일일고용직은 1점, 서비스직, 숙련·반숙련공, 단순노무직 등은 2점, 자영상인 및 자영서비스업자·기능직은 3점, 하위전문기술직, 정부의 하급공무원, 일반회사 사무직은 4점, 고위전문직, 정부의 관리직 공무원, 일반회사의 고급관리직은 5점을 주었다.

註 4) 所得水準은 경제기획원의 都市家計年報에 의하여, 1986년 서울특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가계소득인 515,014원을 참고하여 하위소득계층부터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다. 30만원 미만은 1점, 30~50만원 미만은 2점, 50~70만원 미만은 3점, 70~120만원 미만은 4점, 120만원 이상은 5점을 주었다.

註 5) 本 연구 標本의 계층구분은 社會經濟的 地位 점수가 높은 집단을 上層, 중간 집단을 中層, 낮은 집단을 下層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全國標本의 上·中·下 階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註 6) 新婚期는 결혼생활이 아직 완전히 定着되지 않은 時期로 夫婦間 適應의 問題가 있다(Aldous 1978).

註 7) 初婚이 아닌 경우에는 結婚安定性이 낮아진다는 研究(Becker et al 1977)가 있다.

註 8) 本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初婚이 아닌 응답자는 11名(20%)으로, 자료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本 연구의 응답자의 특성은 表 1과 같다.

3) 資料 蒐集 및 調査節次

本 調査에 앞서서 豫備調査를 면접조사와 실문지법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本 調査의 질문지를 의도적 표집으로 학교와 직장을 통한 질문지 배부방식과 면접원을 통한 질문지 면접조사 방식, 두가지로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포된 질문지중 620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男便 265名, 婦人 289 名 총 554부를 최종적인 分析資料로 사용하였다.

4) 調査道具의 構成

本 연구에서 사용된 尺度는 結婚満足度 尺度, 結婚安定性 尺度,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尺度,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 尺度 및 結婚慣習化(marital conventionalization) 尺度⁹⁾인데, 結婚慣習化 尺度는 주요 研究問題 및 假說의 검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本 연구의 結婚満足도를 尺度는 Sabatelli(1984)의 結婚比較水準指標를 기초로 하여 24문항을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신뢰도계수 $\alpha = .82$ 였다. 結婚安定性 尺度는 Booth와 동료들(1983)이 개발한 結婚不安定性 尺度(MII: Marital Instability Index)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문항수는 10개이며 신뢰도 계수 $\alpha = .85$ 로 나타났다.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尺度는 Levinger(1976)의 연구와 Udry(1981)의 結婚代案尺度(Marital Alternatives Scale)를 참고로 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계수 $\alpha = .79$ 로 나타났다.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 尺度는 Levinger(1976)의

연구와 Sabatelli와 Cecil-Pigo(198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10개의 문항을 작성했는데, 신뢰도 계수 $\alpha = .79$ 로 나타났다.

이 尺度들의 타당도는 碩士學位 이상을 소지한

表 1.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변 수	집 단	빈 도 (%)
성 별	남	265 (47.8)
	부	289 (52.2)
	계	554
연 령	20 ~ 29 세	51 (9.6)
	30 ~ 39 세	198 (37.4)
	40 ~ 49 세	215 (40.6)
	50 ~ 59 세	63 (11.9)
	60 ~ 69 세	2 (0.4)
	계	529
결혼지속년수	5 년 이 하	110 (20.6)
	6 ~ 10 년	99 (18.5)
	11 ~ 15 년	74 (13.9)
	16 ~ 20 년	153 (28.7)
	21 ~ 25 년	57 (10.7)
	26 ~ 30 년	31 (5.8)
	31 년 이 상	10 (1.9)
	계	534
자 녀 수	1 명	98 (19.7)
	2 명	195 (39.2)
	3 명	136 (27.3)
	4 명 이 상	69 (13.4)
	계	498
부 인 의 취 업	유	72 (75.1)
	무	217 (24.9)
	계	289

註 9) 結婚慣習化는 자신의 결혼을 이상화시키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성향으로 結婚満足度 尺度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本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점수가 아주 높은 쪽에 속하는 45점 이상의 응답자 17명을 제외시키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表 2.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른 結婚滿足도의 一元分散 分析 結果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만족도의 평균	(빈도)
上	80.39	(89)
中	76.87	(200)
下	74.25	(155)
F 값	5.70 **	

** p < .01

表 3. 社會經濟的 地位別 結婚滿足도의 Scheffé 檢證結果

	上	中	下
上			
中			
下	*		

* p < .05

家族學 專門家 4人으로부터 檢증을 받았다.

5) 資料의 分析方法

資料의 分析은 一원분산분석, Scheffé 檢증, Pearson의 積률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 중회귀 분석, 카이사승, 빈도, 백분율 등을 이용하였다.

IV. 結果 및 解釋

1)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른 結婚滿足度

一원분산분석의 結果, 結婚滿足度의 平均점수는 上層 집단에서 가장 높고, 下層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有意했다(F=5.70, p < .01), (表 2참조).

이 結果에 대해서 追후檢증으로 각 階層 집단의 平均값을 比較하기 위해 Scheffé檢증한 結果, 表 3에서와 같이 上層과 下層은 有意한 차이를 보였다(p < .05).

表 4.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른 結婚安定性的 一元分散 分析 結果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안정성의 평균	(빈도)
上	42.66	(86)
中	42.61	(197)
下	40.55	(152)
F 값	7.18 ***	

*** p < .001

表 5. 社會經濟的 地位別 結婚安定性的 Scheffé 檢證結果

	上	中	下
上			
中			*
下			*

* p < .05

이 結果로 社會經濟的 地位의 구성변수가 되는 教育이나 所得, 職業 威勢 등이 높아지면 結婚生活 내에서의 報償水準이 높아져 滿足度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社會經濟的 水準의 한 指標가 되는 教育은 意思疏通 技術을 높여 自己表現力을 증가시키는데, 정보와 의견을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애정표현도 증가시켜(Blood & Wolfe 1960), 夫婦間 情緒의 安定感에 기여한다. 또한 教育은 近代의인 性役割 價値를 갖게 하여 結婚滿足도와 관련된다 (Scanzoni 1975; 李炯實 1985).

所得은 家庭生活의 物質的인 欲求 充足과 가장 긴밀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 本 연구의 結婚滿足 개념에는 期待水準이 比較水準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수준보다는 주관적 평가가 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職業은 物質的 報償과 象徴的인 威信과 관련되어 結婚滿足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本 연구에서는 이 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表 6. 結婚満足度,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 結婚安定性的 相關係數表

	결혼만족도	결혼해체에 대한 대안	결혼해체를 막는 장벽	결혼안정성
결혼만족도				
결혼해체에 대한 대안	-.173 *** (N=445)			
결혼해체를 막는 장벽	.248 *** (N=459)	-.354 *** (N=428)		
결혼안정성	.508 *** (N=475)	-.278 *** (N=439)	.368 *** (N=453)	

*** p < .001

表 7. 結婚満足도와 結婚安定性的 關係에 대한 代案과 障壁의 部分相關係數表

독립변수	통제변수		
	결혼해체에 대한 대안	결혼해체를 막는 장벽	결혼해체에 대한 대안 결혼해체를 막는 장벽
결혼만족도	.596 *** (N=420)	.580 *** (N=420)	.572 *** (N=418)

*** p < .001

다른 階層의 夫婦들의 滿足에 差異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른 結婚安定性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結婚安定性은 表 4와 같이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역시 上層에서 가장 높고 下層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有意했다(F=7.18, p < .001). 하위집단별 차이를 알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한 결과, 下層은 有意水準 .05에서 上層·中層에 대해서 모두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表 5참조).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아짐에 따라 結婚安定性이 높아지는 것은 結婚生活에 대한 滿足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結婚生活에서 얻는 報償이 큰 階層에서는 쉽게 그 관계를 해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所得은 특히 結婚生活에 거는 期待를 증가시키는 변수로서(Becker et al 1977) 남편의 所得이 전통적으로 離婚이나 別居를 고려하

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어왔다. 이는 男便의 所得이 높을수록 婦人이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많이 의존함을 뜻하고, 이러한 의존적인 부인과의 관계 해체는 남편에게도 心理的 制約을 가져오므로, 高所得層의 家族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結婚生活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下層의 家族에서는 낮은 物質的 報償 등으로 인한 不滿과 緊張이 다른 階層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해체할 때 상실할 것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安定性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3) 結婚満足度,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에 따른 結婚安定性

세 변수들과 結婚安定性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結婚満足도가 높을수록,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이 적을수록,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이 높을수록, 結婚安定性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

表 8. 下層의 結婚安定性 回歸分析結果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결혼만족도	결혼해체에 대한 대안	결혼해체를 막는 장벽	
결혼안정성	^a 0.22 ^b 0.49 ***	-0.22 -0.19 ***	0.25 0.25 ***	0.48 ***

^a :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1 *** p < .001
^b : 표준화된 회귀계수

表 9. 中層의 結婚安定性 回歸分析 結果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결혼만족도	결혼해체에 대한 대안	결혼해체를 막는 장벽	
결혼안정성	^a 0.23 ^b 0.60 ***	-0.17 -0.15 *	0.08 0.09	0.44 ***

^a :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01
^b : 표준화된 회귀계수

表 10. 上層의 結婚安定性 回歸分析 結果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결혼만족도	결혼해체에 대한 대안	결혼해체를 막는 장벽	
결혼안정성	^a 0.13 ^b 0.45 ***	-0.04 -0.03	0.26 0.34 ***	0.48 ***

^a :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01
^b : 표준화된 회귀계수

다(表 6 참조) 즉, 結婚滿足度와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은 結婚安定성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은 結婚安定성과 부적상관이 있다.

이 結果를 통해 보면, 結婚生活에서의 滿足이 結婚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은 현재의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은 현재의 結婚이 만족스럽거나 報償이 많다면 탐색되지 않을 것이나, 만일 현재의 夫婦間 關係에서 갈등을 느낀다는가 불만족스럽다면 結婚安定성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障壁은 結婚을 해체하게

될 때, 費用으로 작용하여,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의 水準이 높을수록 結婚安定성이 높아짐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表 7에서 보면 結婚滿足度는 특히 結婚安定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이러한 두 변수 간 강한 관계가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이나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을 통제하고 나서도 남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부분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表 7에서와 같이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과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은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성의 關係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의 結婚安定성은 結婚滿足도와 가장 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다.

4) 社會經濟的 地位別 結婚滿足度,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의 相對的 影響力

結婚滿足度,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이 結婚安定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分析에 사용된 回歸式은 다음과 같다.

$$Y_1 = b_0 + b_1X_1 + b_2X_2 + b_3X_3 + e$$

$$Y_2 = b'_0 + b'_1X_1 + b'_2X_2 + b'_3X_3 + e'$$

$$Y_3 = b''_0 + b''_1X_1 + b''_2X_2 + b''_3X_3 + e''$$

Y_1 ; 下層의 結婚安定性, Y_2 ; 中層의 結婚安定性, Y_3 ; 上層의 結婚安定性, X_1 ; 結婚滿足度, X_2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X_3 ;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 e, e', e'' ; 오차

각 社會經濟的 地位 水準에서 結婚安定성에 관련된 要因들의 영향력은 表 8, 表 9, 表 10 과 같다.

下層에서는 세 변수중 結婚滿足度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beta=0.49, p < .001$),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beta=0.25, p < .001$)과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beta = -0.19, p < .01$)의 順으로 영향미치고, 회귀방정식의

表 11. 下層의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的 類型別 頻度分布

	빈도(%)	결혼만족도		계
		낮은집단	높은집단	
결혼안정성	낮은집단	64(42.1)	19(12.5)	83(54.6)
	높은집단	27(17.8)	42(27.6)	69(45.4)
계	91(59.9)	61(40.1)	152(100)	

$X^2 = 21.07$ $p < .001$

결정계수 $R^2 = .48$ ($p < .001$)로서, 下層에서는 이 세 변수들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하였다(表 8참조).

中層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表 9와 같이 結婚滿足도($\beta = .60$, $p < .001$)와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beta = -.15$, $p < .05$)이 有意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방정식에서 이 세 변수들의 설명력은 44%로($R^2 = .44$, $p < .001$) 下層보다 설명력이 약간 떨어진다. 中層에서는 특히 結婚滿足도가 結婚安定性的의 중요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上層은 表 10에서 보면, 結婚安定성에 영향미치는 독립변수 중 $p < .001$ 수준에서 有意한 영향력을 보인 변수는 結婚滿足도($\beta = .45$)와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beta = .34$)이다. 上層의 結婚安定性的의 변동비율을 설명하는 세 독립변수의 크기는 48% 정도($R^2 = .48$)로 下層과 비슷한 수준이다.

5) 社會經濟的 地位別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的의 類型 分析

分割表와 X^2 검증, 빈도와 백분율을 비교하여 階層別로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¹⁰⁾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下層의 夫婦關係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類型은 結婚滿足도 낮고 結婚安定性도 낮은 類型(42.1%)이다. 下層의 경우는 세 변수의 영향이 모두 有意했던 바, 結婚滿足도가 낮는데도 結婚安定性은 높은 유형

表 12. 中層의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的 類型別 頻度 分布

	빈도(%)	결혼만족도		계
		낮은집단	높은집단	
결혼안정성	낮은집단	58(29.4)	21(10.7)	79(40.1)
	높은집단	37(18.8)	81(41.1)	118(59.9)
계	95(48.2)	102(51.8)	197(100)	

$X^2 = 31.87$ $p < .001$

表 13. 上層의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的의 類型別 頻度 分布

	빈도(%)	결혼만족도		계
		낮은집단	높은집단	
결혼안정성	낮은집단	24(27.9)	10(11.6)	34(39.5)
	높은집단	9(10.5)	43(50.0)	52(60.5)
계	33(38.4)	53(61.6)	86(100)	

$X^2 = 22.48$ $p < .001$

(17.8%)은 障壁이 높거나 代案이 적은 경우로 障壁의 기능이 보다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표 8 참조). 이는 이 階層에서의 障壁 中 經濟的 側面인 物質的 障壁의 영향이 크고, 結婚解體 이후의 經濟的 扶養에 대한 代案이 다른 階層에 비교해서 적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階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結婚滿足도가 낮고 結婚安定性도 낮은 유형은 이 階層의 結婚生活의 滿足水準이 떨어지고 結婚生活도 不安함을 암시하고 있어 家庭의 貧困으로 인한 解體 혹은 家族의 非結束 상태를 보고했던 손덕수(198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下層家族은 物質的 측면에서의 資源 不足으로 夫婦關係와 같은 친밀한 人間關係가 영향받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中層의 夫婦關係는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滿足도와 安定性이 모두 높은 유형이

註 10) 여기서는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的의 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를 고려하여 각각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두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41.1%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結婚滿足도가 낮고 結婚安定性도 낮은 類型도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29.4%), 앞에서 본 것처럼 結婚滿足도의 영향을 세 階層中 가장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表 13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上層의 夫婦關係는 結婚滿足도가 높고 結婚安定性도 높은 유형이 이 階層 유형 분포에서 반 정도를 차지한다(50%). 그 외 세 유형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階層은 結婚滿足도와 障壁의 영향을 받는 점에서는 下層 家族에서와 비슷하지만 그 영향받는 樣相이 다소 틀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 結婚滿足도가 높으면서도 結婚安定性이 낮은 유형은 他 階層보다 上層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代案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V. 結論 및 提言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른 結婚滿足도, 結婚安定性의 差異와 結婚安定性에 작용하는 結婚滿足도,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의 관계 규명 등을 研究目的으로 했던 本 研究에서의 經驗的 資料 分析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結論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로, 社會經濟的 地位의 水準이 높을수록 結婚滿足도는 높다.

둘째로, 社會經濟的 地位의 水準이 높을수록 結婚安定性이 높다.

그러나 本 研究의 結果를 一般化하여 社會經濟的 地位가 낮다고 하여 반드시 結婚生活이 不滿足스럽다거나 結婚安定性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 研究結果는 본 연구의 調査標本에 한하며, 이에 대한 보다 體系의이고 深層的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째, 結婚滿足도와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이 높

을수록 結婚安定性이 높으며,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이 적을수록 結婚安定性은 낮다.

本 研究의 結果, 結婚滿足도는 結婚安定性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結婚滿足도가 結婚安定性을 설명하는 가장 一次的인 要因이 된다는 Spanier(197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社會交換理論의 基本 假定에서 출발한 結婚의 質과 結婚安定性에 관한 先行研究들과 일치한다.

네째, 社會經濟的 地位別로 結婚滿足도, 結婚解體에 대한 代案, 結婚解體를 막는 障壁 등의 結婚安定性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다르다.

다섯째로,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의 네가지 유형이 社會經濟的 地位 수준별로 나타나는 비율은 다르다.

結論적으로, 本 研究에서는 社會經濟的 地位別로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의 關係나 樣相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으며, 특히 結婚滿足도가 結婚安定性의 가장 중요한 豫測變數라는 것을 研究結果로서 제시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制限點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社會階層間 結婚生活 내에서의 어떤 영역이 結婚滿足도와 結婚安定性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結婚滿足도 水準이 가장 낮고 結婚安定性·水準도 가장 낮은 貧困階層의 家族研究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 階層은 他 階層보다 특히 갈등이나 긴장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心理的 福祉 次元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세째, 結婚滿足도 尺度를 오염시킬 수 있는 結婚慣習化 性向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네째, 앞으로의 研究에서는 人口學的 變數들을 포함해 結婚安定性에 영향 미치는 關聯要因들을

밝혀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러한提言을 바탕으로 한 보다 本格的이고 抱括的인 研究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REFERENCES

- 1) 經濟企劃院 : 도시가계연보, 1986
- 2) 朴龍治 : 생활지수의 측정. 행정논총 15(2) : 78~104, 1977
- 3) 朴泰溫 :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 139~150, 1983
- 4) 徐炳淑 · 金潤 :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 127~138, 1983
- 5) 소연경 :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예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 6) 손덕수 : 도시빈곤과 빈민여성. 한국의 가난의 여성에 관한 연구 : 11~128 서울 : 민중사, 1983
- 7) 劉永珠 :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4 : 1~13, 1979
- 8) 이미숙 : 자녀의성, 연령, 수와 주부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 151~179, 1985
- 9) 李玉珍 :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가족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10) 李貞蓮 : 주부의 결혼 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 105~119, 1987
- 11) 李炯實 :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12) 趙馨 : 여성지위에의 사회계층론적 접근 · 한국사회학 15 : 9~19, 1981
- 13) 崔信德 : 현대사회와 가족. 현대사회와 가족 : 41~54, 서울 : 아산사회사업복지재단, 1986
- 14) 洪斗承 :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5(3) : 69~87, 1983
- 15) 洪斗承 · 徐寬模 : 한국사회계층의 실태와 개념상의 재구성 문제. 사상과 정책 53~61, 1984
- 16) Aldous J : *Family careers*.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8
- 17) Becker GS, EM Landes and RT Michael : An economic analysis of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 1141~1187, 1977
- 18) Booth RO Jr and DM Wolfe : *Husband and wives*. New York : Free Press, 1960
- 19) Booth A and LK White : *Thinking abou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 605~616, 1980
- 20) Booth A, D Johnson and JN Edwards : *Measuring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387~393, 1983
- 21) Brinkorhoff DB and LK White : *Marital satisfaction in an economically marginal popul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 295~268, 1978
- 22) Burr WR :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 Wiley, 1973
- 23) Burr WR, GK Leigh, RD Day, and J Constantine : *Symbolic interactionism and the family*. In Burr WR, R Hill, FI Nye and I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
- 24) Campbell A, PE Convers and WL Bodgers :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1976
- 25) Cutright P : *Income and family events :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291~306, 1971
- 26) Davis A, BB Gardner and MR Gardner : *Deep south*.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1965
- 27) Edward JN and JM Saunders : *Coming apart*

- ：A model of the marital dissolution deci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379-282, 1981
- 28) Glenn ND and CN Weaver : A multivariate, multisurvey study of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 269~282, 1978
- 29) Glenn ND and CN Weaver : The contribution of marital happiness to glob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161~168, 1981
- 30) Goode WJ : Economic factors and marital stability. In R.F. Winch, and R.M. McGinnis (Eds), *Selected studi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 Henry Holt and Company, 1953
- 31) Goode WJ : Marital satisfaction and instability : A cross-cultural analysis of divorce r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4 : 507~526, 1962
- 32) Jorgensen SR : Socioeconomic reward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 A reexamin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 825~835, 1979
- 33) Levinger G : Marital cohesiveness and dissolution :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7 : 32~33, 1965
- 34) Levinger 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2 : 21~47, 1976
- 35) Lewis RA and GB Spanier :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R, R Hill, FI Nye and I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
- 36) Lewis RA and GB Spanier : Marital quality, marital stability and social exchange. In FI Nye (ed), *Family Relationship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1982
- 37) Michael JW, AC Acock and JE Edwards : Social exchange and equity determinants relationship commi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3 : 161~175, 1983
- 38) Sabatelli RM : The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 : A measure for assessing outcomes relative to expect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 651~662, 1984
- 39) Sabatelli RM and EF Cecil-pogo : Relational independence and commitment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 931~938, 1985
- 40) Scanzoni JH : Opportunity and the family. New York : The Free Press, 1970
- 41) Scanzoni JH : Sex, economic factors, and marital solidarity in black and whit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 130~144, 1975
- 42) South SJ : Economic conditions and the divorce r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 31~41, 1985
- 43) Spanier GB :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782~783, 1976
- 44) Thibaut JW and HH Kelley :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 Willey, 1959
- 45) Udry JB : Marital instability by race, sex, education and occupation using 1960 census dat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 : 203~209, 1966
- 46) Udry JB : Marital alternatives and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889~897, 1981
- 47) Udry JB : The marital happiness/disruption relationship by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221~222, 1983

